세월호 참사를 마주하는 예술의 자세*

이원재**

차례

1. 늦었지만 늦지 않은 예술행동
2. 행동주의 예술
3. 세월호 예술행동
4. 예술을 통한 사회적 연대를 상상하며

1. 늦었지만 늦지 않은 예술행동

2014년 11월 15일 광화문 광장에는 예술가들이 자신들의 연장이라 할 수 있는 기타, 나발, 카메라, 붓, 종이, 책 그리고 몸뚱이를 이끌고 모여들었다. 세월호 참사 200일에 즈음해서 예술가들이 자율적으로 기획한 "늦었지만 늦지 않은 예술행동" <세월호, 연장전>(이하 연장전)의 두 번째 행동을 하기 위해서였다. 이 날 예술가들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은 304개의 빈 책상들을 광화문 광장에 설치하는 것이었다. 304개의 빈 책상들은 세월호 희생자 304명을 상징했다. 304개의 빈 책상들은 억울한 죽음들을, 그 죽음이 남기고 간 우리 사회의 텅빈 마음들을, 진실은 고사하고 무엇 하나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수많은 허무(虛無)들을

* 이 글은 '2015년 한국여성문학학회 봄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예술행동의 흔적과 의미들 _ 세월호 참사를 마주하는 예술의 자세>(이원재, 2015)를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moleact@gmail.com

상징했다. 넓디넓은 서울 도심에 304개의 빈 책상이 설치되었을 뿐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복잡하고 어수선한 광화문 광장이었지만 그저 소리 없이 자리하고 있는 304개의 빈 책상들은 그 존재만으로도 광화문 광장은 물론 도시 전체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빈 책상들은 마주치는 수많은 시선들을 슬픔에 잠기게 했으며 애써 모른 척 회피하는 마음들조차 부끄럽게 만들었다. 그리고 빈 책상과 책상 사이를 오가며 예술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되물었다. "지금, 우리에게 예술은 무엇인가?"

세월호 참사 이후 수많은 예술가들이 자발적으로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을 촉구하고, 세월호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예술 행위를 해왔다. 누군가는 그 처절함을 그렸고, 누군가는 시를 짓고 낭독했으며, 누군가는 광장을 서성이며 노래를 불렀고, 누군가는 이 모든 행위들을 빼곡하게 기록했다. 예술가들은 팽목항, 안산, 서울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세월호 참사가 가져온 우리 사회의 거대한 충격을 그 어떤 형태로든 받아들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연장전> 역시 그러한 과정들 중의 일부였다. 다만 <연장전>은 처음부터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기획된 행동은 아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다. <연장전> 역시 이러한 과정들과 그 궤를 함께하고 있다. 동시에 <연장전>은 그 안에 또 다른 질문을 깊게 품고 시작했다. 바로 앞서 304개의 빈 책상들이 물었던 바로 그 질문 말이다. "지금, 우리에게 예술은 무엇인가?"





<연장전>은 어쩌면 세월호 참사 이후 예술가들이 해왔던 모든 행동들에 대해 질문하는 행위이자 과정이다. <연장전>은 “세월호 참사 이후, 예술은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았다. 과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예술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처지인가?”, “304명의 죽음 앞에서 예술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304명의 죽음에도 무엇 하나 설명할 수 없는 한국 사회에서 예술은 무엇을 할 것인가?”...

> “그런 뻔뻔함, 그런 철면피는 이제 그만보고 싶다. 그만 볼 때도 한참 지났다.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한 삶은커녕 언제 어디서 죽을지도 모를, 죽어도 모를, 죽어도 구조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풍경을 우리가 언제까지 보고 살아야 하는가. 이 나라에서 산다는 이유만으로 그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그런 괴로운 환경을 인내하며 일상을 살도록 강요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이런 판을 어떻게 끝장낼 수 있을 것인가. 언제! 어떻게! 누가!”[1]

소설가 공선옥의 질문처럼 <연장전>은 무엇 하나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 덩어리들이다. 모든 것이 흐릿해져 버린, 대안은 고사하고 희망조차 맘 편히 품어보기 부담스러운, 하지만 아침이 되면 또 다시 숨 쉬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과 예술에 대한 질문들말이다. 그래서 <연장전>은 이 글의 화두인 “예술행동의 사회적 의미와 전략에 대하여”와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다. <연장전>이 품었던 “(세월호 이후,) 예술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야말로 지금 예술행동의 새로운 출발점이자 현주소다.

---

1) 공선옥, 「우리에게 정치는 있는가? – 11월 15일, <세월호, 연장전>에 함께 하며」,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4시간 16분 낭독·음악회 기억하라, 기록하라』 자료집, 2014년 11월, 50쪽.









2. 행동주의 예술

"상품미학이 상품의 매력을 만들어냄으로써 사람들의 가치, 인식, 행동 방식을 바꾸고 그들을 자본주의적 라이프스타일에 통합시키는 중요한 기제라면, 오늘 이 미학이 지배적 위상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현 단계에서 자본주의가 재생산되는 데 미학이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말일 것이다." - 강내희

"예술은 자신의 지성적인 역할, 즉 세계를 감각적으로 인지하면서 세계에 관한 보편적인 인식을 생산한다는 것을 포기한 지 오래이다." - 서동진

세월호 참사를 마주하며 진행된 수많은 예술들을 일관된 개념이나 형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오랫동안 현장 예술을 해온 작가들부터 사회적 개입에는 관심이 없었던 소위 순수예술가들, 대중예술 종사자들 그리고 시민들의 생활예술에 이르기까지 세월호 참사를 둘러 싼 예술은 광범위하고 다층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를 마주한 예술의 경향성, 개별 텍스트로서의 예술작업이 아니라 사회적 사건을 둘러싸고 전개된 다양한 예술적 흐름을 우리는 예술행동의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연장전> 뿐만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예술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에서부터 애도와 추모 그리고 사회적 실천에 이르기까지 예술행동의 경향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술행동 또는 행동주의 예술은 최근 한국의 사회운동 현장 곳곳에서 다양하게 확산되며 주목받아 왔다. 민주화 운동의 역사 속에서 예술운동의 중요한 가치이자 원리로서 다양한 현장 예술, 노동자 문화의 궤적을 만들어왔던 행동주의 미학이 예술행동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평택 미군기지 반대운동과 용산참사를 계기로 진행된 현장 예술, 한미FTA 저지 운동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에서 표출된 다양한 문화예술행동, 사회적 예술기획으로서의 희망버스 운동, 예술과 노동의 새로운

연대를 실천하고 있는 콜트콜텍 기타노동자 투쟁 등 지금 우리 시대의 사회운동에서 예술행동은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예술행동은 예술의 영역에서 행동주의의 철학과 가치 그리고 시대적 경향성을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일반적인 예술운동이 예술의 자율성을 획득하고, 예술의 관점에서 사회적 관계성을 구축하는 실천의 장이었다면, 예술행동은 예술 자체의 내재적 자율성이나 심미적 영역만이 아니라 예술의 사회적 개입, 문화정치적 맥락화 등을 통한 자기 실천을 추구한다. 따라서 지금 사회운동 현장 곳곳에서 전개되고 있는 다양한 예술행동은 기존 예술운동의 한계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과 새로운 대안 모색이라는 과제를 내재하고 있다. 예술행동은 예술의 내부에 머물고 있는(제도화된 형식으로서의 예술로 모든 것을 수렴하는) 제한된 의미의 “관계의 미학”이나 “사회적 예술”의 수사를 가로질러 예술의 외부에 존재하고 있는 정치, 경제, 문화와의 새로운 관계 맺기를 통해 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현재성을 질문한다.

먼저 예술행동은 민주화 운동과 함께했던 민중미학 이후 단절되었던 새로운 사회미학의 필요성 속에서 제기되었다. 민주화 운동과 민중미학의 시대 이후 예술운동은 과거의 성과와 한계를 통해 새로운 상상력을 증폭하기보다는 오히려 장르적인 고착화, 분절화 등을 반복했다. 반면 1990년대 이후 대중의 일상은 과학기술, 미디어, 문화산업, 대중문화 등의 확장 속에서 문화적 콘텐츠와 기호로 가득 차 있으며, 가중되는 노동강도 속에서도 여가문화, 취미생활 등 재생산 영역의 소비가 일상의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 더욱이 자본과 국가는 신자유주의의 위기, 자본주의의 전환기에서 예술을 신성장동력, 미래지향적 고부가가치산업, 예술 창의성에 기반한 도시개발, 새로운 일자리 창출(예술뉴딜) 등으로 호출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기존의 선입관과 한계를 넘어 예술의 사회적 실천을 확대하고, 사회운동의 문화적 재구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대 자본주의의 상품미학과 소비미학을 넘어서야 하며, 이는 사회미학의 관점에서 예술을 새롭게 접근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사회미학은 ‘미학의

사회화'와 '사회의 미학화'를 동시에 모색해야 하며, 개인의 감수성과 작품(텍스트)에 고립되는 개인주의 미학이 아닌 관계성의 미학을 지향한다. 따라서 예술행동은 어느새 인간의 감성까지도 손쉽게 거래할 수 있게 만들어 준 현대 자본주의의 상품미학과 소비미학에 맞서 비판적이고 대안적인 사회미학을 구성해가는 구체적인 전략이자 실천이다.[2)]

또한 예술행동은 진보적이고 대안적인 예술작업, 예술운동에서조차 내면화되어 있는 근대적이고 배타적인 작가주의, 물질화된 모더니즘 미학의 한계 등에 대한 급진적이고 실천적인 해체작업이기도 하다. 행동주의 미학의 관점에서 예술행동은 단순히 예술을 통해 사회적 문제에 개입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술행동은 본질적으로 예술(가)의 재개념화를 비롯하여 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관계성에 대한 새롭고 도발적인 질문이며, 예술의 사회적 존재기반을 재구성하기 위한 예술(가) 스스로의 자기 실천 과정이다. 예술행동의 출발점은 사회적 존재로서 예술가의 자기 점검, 자기 실천에서 나온 대사회적인 자의식의 표출이다. 예술행동은 예술의 공간과 삶의 현장을 이원화하지 않는 통합적 관점, 삶의 태도 등을 전제로 진행된다. 이런 맥락에서 예술행동은 "사회적 정의 내에 포함되는 개인의 자율성 확보, 무비판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생활방식들의 정치화, 현존하는 정치, 경제적 구조의 재생산과 내면화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정신과 욕망의 문화적 재구성, 공공영역(국가나 경제, 정치의 제도적 영역)과 사적 영역(친밀성의 영역)의 상호배타적 이분법에 기초한 규범적 구분의 해체("사적인 것이 가장 공적인 것이다") 등의 시도가 지닌 의미를 경제적 억압 이외에도 정치적, 문화적, 심리적으로 작용하는 수많은 억압과 규제들을 자각하는 데서 발견하여야 한다."[3)]

예술행동은 감수성, 일상성, 현장성, 관계성, 자율성 등의 가치와 원칙

2) 강내희, 「의림의 시적 정의, 또는 사회미학과 코뮌주의」, 『문화과학』 53호, 문화과학사, 2008년 봄, 34쪽.

3) 임정희, 「문화적 기획으로서의 예술행동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문화연대 토론회 『문화운동이여 정치를 구하자! 정치를 전복하자!』 자료집, 2007, 29쪽.

을 통해 사회운동과 예술운동을 재구성하고, 대중운동의 일반화된 위기에 대응한다. 예술행동을 계기로 발생하는 예술 안팎의 사회적 성찰과 자각은 사회운동의 다양한 이상과 가치들을 더욱 친밀하고 개방적이며 일상적으로 확장한다. 이는 예술행동이 최근 사회운동의 중요한 과정이자 방법으로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예술행동은 기존 사회운동이 반복하고 있는 조직과 시스템, 이성적 목적지향성과 계몽주의, 정치이데올로기와 일상의 분리, 위계화된 조직화와 대의적 실천, 진지함과 엄숙주의 등을 전복한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사회적 개인과 집단성, 감수성과 교감, 일상적 관심과 취향, 자율성과 자기 실천, 놀이와 즐거움 등을 연결시킨다. 예술행동의 과정에서 발견되는 감수성, 일상성, 현장성, 관계성, 자율성 등은 더 이상 사회운동의 도구이거나 기술적인 차원의 이벤트가 아니며, 사회운동의 자기 실천을 위한 가장 중요한 구성적 가치이자 원리이다. 지난 시절 '현장 예술'이 전문화, 제도화된 시스템에 기반하여 진행되는 경험주의적 예술들과 스스로를 단절시키며 예술의 사회적 실천을 모색하였듯이, 예술행동은 이제 물질화된 근대적 예술구조로부터 자발적으로 벗어나 사회적 사건을 예술로 현장화하고, 현장화된 예술을 다시 사회적 사건과 공간으로 연결, 확장한다. 예술을 둘러 싼 사회적 소통(유통)의 중심에 물질화, 상품화된 예술작품이 아니라 참여, 과정을 중요시하는 행위나 태도(정신성) 그 자체를 위치시킴으로서 예술에 대한 자본주의의 가치체계를 위협하거나 재전유한다. 자본주의가 예술을 둘러 싼 모든 가치를 교환가치 중심의 상품으로 물질화한다면, 그 맹목적이고 강요된 물질화 과정에서 예술의 다양한 가치와 사회적 역할들이 유배를 떠나야 했다면, 예술행동은 예술의 본질적이고 사회적인 가치와 관계를 다시 현실로 초대한다. 예술행동의 감수성, 일상성, 현장성, 관계성, 자율성 등의 원리 속에서 사회적 진실, 분노, 두려움, 슬픔, 소통, 희망 등이 우리의 삶과 공간에 다시 소환되며 회자되고 교감을 시도한다.

결국 예술행동은 텍스트와 물질화를 통해 고정된 의미로 포획되지 않는 태도와 실천으로서의 예술이다. 예술행동은 미술평론가 김준기의 지

적처럼 궁극적으로 “실천의 결과를 예술적인 유산으로 남기려하기보다는 그 결과를 토대로 하는 또 다른 예술실천의 디딤돌”이 되는 과정이며, 그런 점에서 “가장 예술적인 방법으로 맹렬하고 첨예하게 사회에 개입하고 참여하는 진정한 전위” 예술이다.[4] 지금 예술행동은 능동적인 사회미학을 생성하며 일상의 미학, 현장의 미학, 참여의 미학, 관계의 미학, 자율의 미학 등을 기반으로 아방가르드를 비롯한 근대 미학과 예술운동의 한계에 도전하고 있다.

3. 세월호 예술행동

세월호 참사를 둘러 싼 예술행동(이하 세월호 예술행동)은 이러한 예술행동의 흐름 속에서 진행되었다. 세월호 예술행동은 세월호 참사 자체가 내재하고 있는,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난 현대 자본주의와 한국사회의 극단적인 모순, 무기력에서 출발하였으며 이러한 현실 세계에 대한 슬픔, 기억, 분노, 저항, 대안 등을 사회적으로 표현하고 공유하는 과정이었다.

먼저 세월호 예술행동은 한국 사회를 비롯하여 현대 자본주의가 마주하고 있는, 어느새 일상이 되어버린 ‘위험사회’, ‘재난의 시대’, ‘파국 이후의 삶’ 등에 대한 사건들이다. 현대 자본주의에서 빈번하게 속출하고 있는 대규모 재난은 더 이상 “하늘의 뜻”이 아니라 “자본의 뜻”에 그 원인이 있다. 이제 재난은 이상 기후를 비롯한 환경 재난에서부터 시작하여 비행기 추락, 방사능 유출, 대규모 전쟁에 이르기까지 자연과는 무관한 인간의 욕망, 더 적확하게는 더 많은 이윤을 위한 인간이 만들어 온 근대 산업화와 현대 자본주의 문명의 중요한 단면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이러한 재난의 시대는 기존의 정치적 관계를 뛰어 넘는 본질적인 문제설정을 요구한다. 모든 재난의 구조 속에는 현실의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들이

4) 김준기, 「행동으로서의 예술」, 문화연대 포럼 『정치 예술과 미디어 행동주의의 鬪合』 자료집, 2009, 8쪽.

중층적으로 작동하고 있지만, 거대한 재난의 국면에서 인간 개개인이 느끼는 감정은 다른 사회적 사건들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인간은 거대한 재난 앞에서 감각적 충격뿐만이 아니라 절망과 좌절 그리고 무기력을 경험하고 내면화하게 된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의 현실화된 재난의 시대다. 그리고 세월호 예술행동은 이러한 재난 시대의 예술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세월호 예술행동은 무기력하고 냉소적이며, 동시에 삶을 둘러 싼 본질적인 물음들을 품고 있다.

세월호 예술행동은 재난의 시대에 반복되고 있는 사회적 애도, 애도의 정치에 대한 예술행동의 고민을 촉발시켰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애도의 정치"를 둘러 싼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자식을 잃고 부모형제를 잃은 유가족들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희생자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꼈고, 유가족들 앞에서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맹세를 한 우리 역시 그들과 '함께 살아남기'를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적 애도의 주체"[5]가 된 것이다. 세월호 참사라는 거대한 사회적 죽음 앞에서 예술행동 역시 우선적으로 사회적 추모와 애도를 표현하였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사회적 추모와 애도로서의 예술행동은 매우 광범위하다. 세월호 참사를 둘러 싼 문제가 정치적 이념에 제한되지 않고, 박근혜정부를 비롯하여 국가장치의 모순과 무기력함이 반복적으로 노출되었으며, 그 사회적 여파가 광범위하고 지속적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술행동 역시 광범위하고 보편적으로 전개되었다. 세월호 참사를 둘러 싼 사회적 애도, 애도의 정치로서 예술행동은 그 형식과 주체, 장소와 시간의 경계를 넘어 예술가에서 어린이, 팽목항에서 뉴욕, 급진적인 좌파에서 보수적인 시민, 대규모 집회에서 동네 모임에 이르기까지 일상적으로 진행되었다.

5) 정원옥, 「세월호 참사의 충격과 애도의 정치」, 『문화과학』 79호, 문화과학사, 2014년 가을, 66쪽.





또한 세월호 예술행동은 사회적 참사와 고통을 적극적으로 기록하는 행동으로 이어졌다. 우리 사회에서 세월호 예술행동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기억의 정치”, “행동하는 기억”이라는 사회적 행위의 중요성을 확산시켰다는 점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감추어 질 것이라는 우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는 의지,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슬픔과 고통을 제대로 기록해두어야 한다는 판단, 애도의 정치를 위한 과정으로서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억하기 등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세월호 참사 초기부터 기록의 과정에 참여했고,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와 동시에 팽목항으로 달려간 사진가들, 다큐멘터리 작가들을 비롯하여 세월호 유가족들의 육성들을 고스란히 담은 르뽀 작가들, 세월호 희생자들의 삶의 궤적을 기록한 사진작가들의 빈방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세월호 참사를 둘러 싼 기억으로서의 예술행동은 광범위하고 밀도있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세월호 예술행동은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은 물론 세월호 참사라는 사회적 사건을 예술적 감수성을 통해 기록해나가는 거대한 아카이빙 작업으로 연결되었다. 물론 세월호 참사를 둘러 싼 아카이빙 작업들은 좁은 의미의 예술 아카이브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를 둘러 싼 기억의 정치이자 행동하는 기억의 사회적 실천으로 이해돼야 한다. 세월호 참사를 전환점으로 기억과 기록을 둘러 싼 예술행동은 더욱 다양한 사회적 의미와 실천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동시에 세월호 예술행동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비롯하여 새로운 세계와 대안에 대한 자기실천적인 예술의 장으로 확장되었다. 세월호 참사

는 재난이 가진 이중적 성격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재난의 이중성이란 대규모의 위해와 상실을 강제하는 사건이면서, 동시에 기존 사회의 모순을 드러내면서 이를 극복해낼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재난이라는 사건이 만들어내는 상실은 우리에게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파헤치게 만드는 계기이고, 이 원인이 제대로 파헤져진다면 재난은 이후의 위기와 파국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6] 비록 세월호 참사는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하나의 진실도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지난 1년 동안 세월호 참사를 둘러 싼 예술행동은 재난의 이중성이라는 국면 속에서 새로운 분노, 저항, 대안 등을 위한 사회적 실천을 모색해 왔다. 세월호 예술행동은 추모와 기억의 기반 위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이라는 사회적 문제해결과 더 나은 세계(안전한 사회, 더 많은 민주주의 등)를 향한 행동으로 전개되었다. “처참한 재앙이면서 돌파의 기회이기도 한 재난의 이중성은 재난이 단지 ‘사고’가 아니라 하나의 ‘정치적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술행동은 오랜 경험과 궤적 속에서 내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세월호 예술행동의 흐름들은 세월호 참사라는 거대한 사회적 트라우마에 대한 사회적 치유라는 문제설정과 맞닿아 있다. “치유”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위험사회, 재난의 시대, 파국 이후의 삶 등 현대 자본주의의 위기가 일상화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난의 시대일수록 치료 문화는 보편화되고 치유는 상품이 되며, 이처럼 공급된 “감정 상품”들은 자본주의의 모순을 개인화하고 감성화하는 장치로 작동한다. 감정자본주의, 인지자본주의, 비물질노동의 시대에서 치유는 소멸된 문화적 관계를 재생하는 과정이 아니라 감정을 둘러싼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예술의 영역에서조차 예술치유, 힐링문화 등을 둘러 싼 치유산업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지만 그 양적 팽창은 사회적 문제의 해결 및 실질적인 사회변화와는 지나치게

6) 문강형준, 「재난 시대의 정동 : 애도의 가능성과 불가능성」, 『2015년 한국여성문학학회 봄 정기 학술대회 자료집』, 2015년 5월, 별지 3쪽.

무관하다. 세월호 참사는 그 특성상 치유를 필요로 한다. 거대하고 직접적인 죽음은 물론 사회적 외상에 대한 광범위한 치유가 이야기될 수밖에 없다. 세월호 예술행동은 많은 부분 이러한 사회적 치유를 모색한다. 하지만 세월호 예술행동이 모색해야 하는 사회적 치유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유행처럼 상품화된 "예술치유"의 레토릭을 넘어 세월호 참사 앞에서 맨 얼굴을 드러낸 한국사회의 거대한 모순들과 위기들을 본질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노력이다. 치유는 누군가가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마주한 채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세월호 예술행동은 예술 자체에 대한 물음에서부터 시작하여 개인의 안전, 공통체의 현실, 국가의 역할, 다가올 미래 등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들을 시작하였다. 세월호 예술행동은 사회적 구조와 격리된 타자화된 치유가 아닌 자기실천적인 행동을 통해 사회적 치유를 모색하는 고통스런, 그러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4. 예술을 통한 사회적 연대를 상상하며

> "폭넓은 관점을 지닌 '열린예술'은 예술을 시각적, 문학적 재현에 국한하지 않고, 일종의 행동이나 일하기 방식으로 보는 행동주의적 관점을 포함한다." - 임정희

예술행동은 "단순히 정치적 변화나 사회적 구조 변화만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행동을 통해 스스로 계몽되는 문화적 실천은 환상, 쾌감, 욕망, 유토피아에서도 작용하면서 의식을 변화시키고, 각자가 계급이나 출신에 구애됨이 없이 자신의 모든 정신적, 신체적, 창조적 능력들을 자유로이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에서 점진적으로 개인의 해방을 이루려는 과정"으로 이해돼야 한다. 예술행동은 이 과정에서 "권위주의적인 사회화와 '일차원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상징적이고 비관습적이며 경계를 벗어나는

저항을 통해 일상적 삶을 억압하고 있는 모든 형태들을 거부하고, 내재적인 삶의 역동성에 신뢰를 보내면서, 인류 내면 깊숙이 감추어진 공동체적 연대의 경험들을 기억해내는 작업이다."[7] 따라서 예술행동은 사회적 변화와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에 있어 예술이 상상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자기 실천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예술행동은 예술(가)의 사회적 정체성, 집단성에 기반을 둔 역사적 예술운동의 역량과 실천을 바탕으로 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을 삶의 공간, 더 많은 민주주의의 영역으로 확장해야 한다. 이는 예술(가)의 절박함이 '사회-삶'과 분리되지 않은 채 그 창의성과 역할이 일상 속으로 교감하는 과정이어야 하며, 다양한 사회 주체들의 위치에서 살아있는 예술을 통해 사회적 연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예술행동은 좀 더 급진적으로 상상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적극적으로 연대해야 한다.

먼저 예술행동의 직접적인 주체인 예술가들 스스로부터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문제에 좀 더 능동적이고 급진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최근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수많은 예술행동들이 사회적 이슈에 연대하고 있지만, 정작 예술(가)를 둘러 싼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은 거의 방치되고 있는 수준이다. 현대 자본주의에서 가장 불안정하며, 노골적인 수탈의 대상이 바로 예술(가)와 예술노동이라는 사실은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 절대 다수의 예술가들이 예술 자체로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며, 자본주의의 변화 속에서 더 많은 상품화와 수탈이 예술과 예술노동을 대상으로 확장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예술(가)는 자신들의 노동 문제에 있어서는 거리를 두거나 스스로를 배제하고 있으며, 자본주의의 수많은 계급적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예술(가) 자신은 스스로의 계급적 관계성에 대해 언제나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예술행동이 더 많은 민주주의와 사회적 모순에 자기 실천적으로 대응하고 연대하기 위해서는 예술(가)를 둘러 싼 예술노동의 문제, 예술(가)를 둘러 싼 정체성과 계급의 문제 등

7) 임정희, 앞의 글, 2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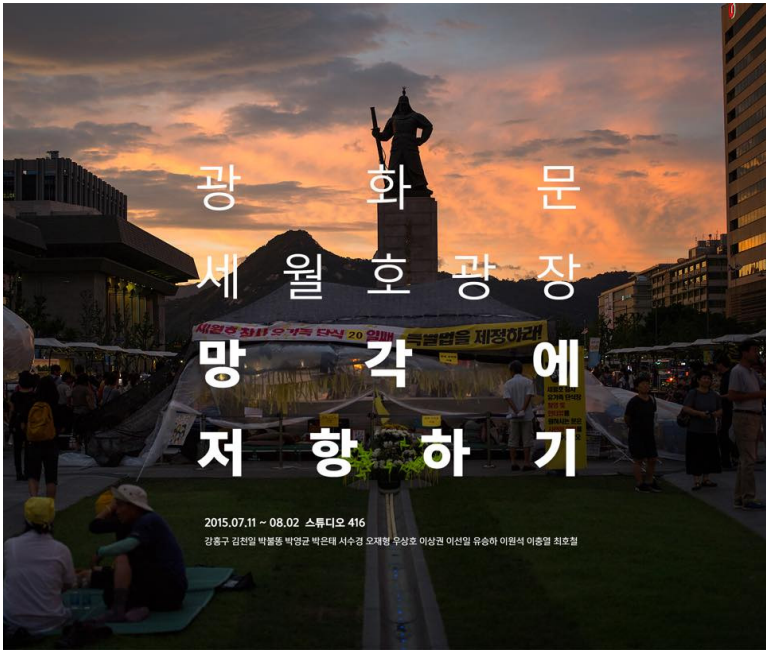
을 예술행동의 주요한 대상이자 의제로 설정해야 한다. 예술(가)의 사회적 존재기반과 정체성 자체가 예술행동의 주요한 대상이자 의제로 형성된다면, 아마도 예술행동은 사회를 향한 문화기획으로서 문화예술의 사회적 정체성과 역할을 재구성하고, 문화예술의 사회적 공공성, 다양성 등을 확장하는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예술행동은 예술(가) 자신에 대한 무관심만이 아니라 문화예술을 둘러 싼 사회적 관계성에 대해서도 무관심했다. 수많은 사회적 폭력과 착취에 맞서,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해, 다양한 사회운동의 의제에 대해서 예술행동은 언제나 적극적인 연대와 자기 실천을 전개해 왔으나 정작 문화예술을 둘러 싼 사회적 문제는 예술행동과의 접점을 찾지 못하는 역설이 반복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술행동은 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일차원적인 개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를 둘러 싼 삶의 재구성과 공진화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예술행동은 표면적인 사회 갈등의 해결을 위한 도구나 이벤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삶을 둘러 싼 민주주의의 내면화, 더 많은 민주주의의 일상화 등을 지향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문화권리 및 문화민주주의 확대, 문화권력과 문화자본에 대한 저항, 문화정책과 문화행정에 대한 직접 행동 등이 동반돼야 한다. 예술행동의 확대, 예술행동을 통한 사회혁신 등을 위해서는 그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문화예술 영역의 사회적 구조에 대한 예술적, 미학적 개입이 필요하다.

예술행동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아니 좀 더 급진적이고 다각적인 예술행동이 전개되기 위해서는 예술행동, 예술운동의 자기 조직화가 필요하다. 물론 여기서 언급하는 자기 조직화는 물리적인 형식으로서의 단체나 조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사회적 흐름으로, 예술행동의 자기 실천 과정으로서 예술(가)의 자직 조직화를 의미하며, 예술행동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확장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예술행동은 자율성의 원리 속에서 기존의 장르별 예술가 조직들, 현장과 괴리된 예술가 조직들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내재하고 있다. 더욱이 예술행동은 기존의 정형화

되고 형식화된 조직구조로 수용될 수 없으며, 지금까지 언급한 예술행동의 미학과 역할이 능동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예술행동의 자기조직화 경로가 필요하다. 예술행동의 자기 조직화는 기존 사회운동, 노동운동, 문화예술단체 등의 한계를 넘어 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 그리고 권리에 대한 새로운 문제설정으로 이해돼야 한다. 이는 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스스로의 존재 기반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과 실천, 그리고 이를 예술행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확장하기 위한 자기 조직화 과정이다. 따라서 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노동의 절합에 주목해야 하며, 예술과 예술의 사회적 연대를 자기 실천하는 실험의 장이 돼야 한다. 이는 사회적인 관점(층위)에서 예술의 자유로운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예술인의 사회적 참여와 역할 그리고 연대를 확대하며, 예술인의 삶이 정당하게 존중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예술가 개개인의 삶(생활환경)의 구조를 대안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집단적 실천이다.






광 화 문
세 월 호 광 장
망 각 에
저 항 하 기
2015.07.11 ~ 08.02 스튜디오 416
강홍구 김천일 박불똥 박영근 박은태 서수경 오재형 우상호 이상권 이선일 유승하 이원석 이충열 최호철

마지막으로 예술행동은 일상성의 확장을 통해 더 다양하고, 구체적이며, 지속가능한 사회운동으로 확장돼야 한다. 예술행동은 예술가, 문화예술 전문가만이 아니라 예술적 상상력과 표현을 통해 누구나 사회적 개입을 할 수 있는 일상적 실천으로 접근돼야 하며, 거대한 사회적 이슈와 현장만이 아니라 생활을 둘러 싼 사회적 의제와 영역들로 확장돼야 한다. 자본주의의 상품미학과 소비미학의 영향력 속에서 일상은 언제나 비생산적이고 무능력한 영역으로 배제되어 왔다. 사회적 경쟁력(경제적 이윤 창출을 위한 생산력주의)을 우선시하는 사회구조 아래서 일상을 둘러 싼 삶의 형태나 노동 그리고 관계 등은 언제나 비생산적이고 무가치한 영역으로 규정되었다. 하지만 일상성에 기반한 예술은 삶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지속적이며 일상적인 관계성을 창출해내는 영역이다. 현대 사회에서 일상의 재구성과 활성화는 반생태적, 반평화적, 반문화적인 자본주의의 무한 경쟁체제와 수탈구조를 비판하고 대안을 창출하는 중요한 자기 실천 과정이다. 일상(성)에 대한 밀도(내밀함)는 자본주의 구조가 요구하는 경제환원주의, 전문가주의(엘리트주의), 경쟁력주의, 생산력주의, 개발주의 등과는 전혀 다른 계열체를 형성한다. 그리고 이러한 계열체의 가치와 원리는 행동주의, 예술행동 등과 그 궤를 함께한다. 일상성에 기반한 예술행동의 확장은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층위에서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과 폭력에 대한 사회적 성찰과 자율적 대안모색(지속가능하고 자율적인 지역 커뮤니티, 진보적인 생태문화코뮌네트워크 등)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또한 미시적이고 개인적인 층위에서는 자본주의의 생산력주의가 일상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반생태, 반문화적 폭력과 다르게 자율적, 성찰적 예술행동을 바탕으로 삶의 자기 완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 일상성에 기반한 예술행동은 사회-삶의 대안을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연대이며, 예술의 공공성을 사회적으로 확장시켜 삶의 질을 높이고 내면화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핵심적인 경로다.